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

96.6.11

3학년 3명 불러 “명찰 왜 안달았나” 가슴만저

말썽나자 진술서 강요...교사들 퇴진운동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교장 한태사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학교 교사들이 교장 퇴진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학생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서울 공진구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은 지난달 16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학교 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명찰이 어디 갔느냐”며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0양은 “교장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며 자꾸 명찰애기를 하며 조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또 황 교장은 두 여학생을 먼저 내보내고 0양만 교장실에 남겨 문을 닫은 뒤 다시 비슷한 짓을 한 뒤 “담배를 피우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추행 시비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황 교장은 10일 낮 12시3분께 이들 3명을 다시 교장실로 불러 교감·학생주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0양은 “학생주임이 전학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고 말해 사실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사들은 “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오늘 학교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희 기자